

고흥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탄력'

전국 첫 주민 참여형 사업으로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해장만 담수호에 95MW급 수상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

고흥군이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추진 중인 주민 참여형 수상 태양광발전 사업이 우선 협상대상자가 선정돼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업무 담당 공무원이 업체에 서류를 유출했다는 의혹도 무혐의 처분을 받아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지난 4일 고흥군에 따르면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평가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해장만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수면 임대 우선 협상대상자로 고흥신에너지를 최종 선정했다.

해장만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2천300억원을 투입해 해장만 담수호 100ha에 95MW 규모의 발전을 하는 시설이다.

고흥군은 직접 투자 없이 자산 임대 방식으로 이익금을 주민들에게 일정 부분 나누어 주는 주민참여형 사업이다.

고흥군은 2017년 10월 업체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아 주민 설명회와 군의회 등의 등을 거쳐 수면임대 제안공고를 냈고 5개 업체가 참여했다.

지난해 11월 한 업체가 업무담당 공무원이 제안서를 다른 업체에 유출했다며 공무원 비밀 누설 의혹을 이유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흥군은 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건설과가 맡던 담당 업무를 군정혁신단으로 이관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최근 고흥군에 '혐의없음' 처분을 통보했다.

고흥군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곧바로 평가위원회를 열어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고흥군은 2월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와 수면 임대 계약을 할 계획이다. 해당 업체는 3월부터 환경영향평기와



고흥 수상 태양광발전소.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등 개발행위 관련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예정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올해 10월이면 착공에 들어가 내년 하반기에는 발전소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발전소가 들어서면 고흥군은 담수호 저류지 수면 임대료 수익으로 20년간 287억원을 받을 수 있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금 36억원, 발전기금 140억원 등 463억원이 해장만간척지 관리와 포두면 발전에 쓰일 것으로 전망했다.

군 관계자는 "환경 오염 등 발전소 건설로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선협상대상자와 주민대표 추진 협의체 등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윤규진 기자 jin2001@



구례군은 지난 3일 군청 상황실에서 관계공무원 20여명이 참석하여 침체된 화업사 상가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위해 협의체 발족식을 가졌다.

구례, 화업사 상가 활성화 방안 모색

도시경관담당 공무원 등 20여명 참석해 협의체 발족

구례군은 지난 3일 군청 상황실에서 △도시경관담당 △위생담당 △관광개발담당 △토목담당 등 관계공무원 20여명이 참석해 최근 관광랜드 변화로 침체된 화업사 상가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반드시 찾아 옛날 화업사 관광지의 명성을 되찾겠다고 다짐했다.

이번에 발족한 협의체 구성원들은 화업사 상가와 업무가 관련 있는 공무원들로 회의에 참석한 위생담당은 화업사 상가 활성화 계획 추진과 맞추어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해 관광객들의 미각을 사로잡겠다고 했다.

관광개발담당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관광시설 계획에 어린이 놀이 시설을 추가해 엄마와 어린이들이 행복해 하는 시설을 만들고, 토목담당은 현재 국도 18호선 끝자락인 화업사 입구에서 화업사구간약 1.8km를 의산지방 국토관리청과 화업사, 한화리조트 지

리산과 협의해 차 없는 도로를 만드는 데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한편 '화업사 상가 활성화 방안'은 구례군과 화업사 등 유관기관의 관광 시설인 △지리산역사문화관 △백두대간생태체험장 △천년고찰 화업사 △반달곰 종복원센터 △늑차시배지 장죽전 △우리나라에서 읍이온이 가장 많이 나오는 화업사계곡의 탐방로 등을 연계해 화업사 상가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구례군의 야심찬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200억 규모의 공모사업에 화업사 상가 활성화방안 계획"을 작성해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구례군이 처리해야 할 행정적인 절차 등을 협의했으며, 공모사업으로 선정 될 경우 차질 없이 추진해 화업사 상가 지구가 활성화 되면 인구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구례=심근식 기자 sgeonsik@

곡성 '청렴한 원년의 해' 다짐 청렴거울 등 다양한 노력 실천

곡성군이 '부정부패 ZERO! 청렴한 곡성 원년의 해'를 2019년 청렴비전으로 삼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시작했다. 지난해 곡성군은 전남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는 1등급(종합 3위),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는 종합 3등급의 결과를 받았다.

부패방지 시책추진 부분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내·외부 청렴의식 및 부패인식 수준에서는 아쉬운 결과가 나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군은 2019년도 첫 청렴시책 활동으로 전 직원에게 1천여 개의 청렴거울과 업무수첩을 제작해 배포했다.

'청렴한 당신! 곡성의 얼굴'이라는 문구를 새겨진 청렴거울과 '청탁은 비우고, 청렴은 채우고'라는 문구가 삽입된 업무수첩을 사용하며 직원을 스스로 청렴 실천의지를 다짐하도록 한다.

더불어 '청렴골든벨' '1부서 1청렴시책 추진' '청렴 확산 이행 분기 보고회 개최' 등 추진할 계획이다. /곡성=심선섭 기자 sss2634@

“보성차밭 빛 축제를 즐기는 방법 대방출”

韓차박물관 등지서 컬러링북 체험행사 등 다채



보성군 그린다향과 한국차박물관 로비에서는 보성 차밭 그림에 자신의 개성을 더해 색칠해 보는 컬러링북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보성차밭 빛 축제에 연일 구름이파가 물리며 대박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일 기준 15만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했다. 보성차밭 빛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즐기고 싶다면 한국차박물관과 북채를 찾아

볼 것을 추천한다. 이곳에는 빛 축제를 찾는 관람객들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돼 있다.

북채 그림마켓과 한국차박물관 명품농차판매점에서 물품 구매 시 일정 금액

(3만원)에 따라 지역 도예작가(김기찬, 홍성일, 박익주, 이정운)가 만든 마그네틱 작품을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더불어, 그린다향과 한국차박물관 로비에서는 보성 차밭 그림에 자신의 개성을 더해 색칠해 보는 컬러링북(임유정 작가) 체험 프로그램(체험비 무료)을 운영하고 있다.

이 이벤트는 농림축산식품부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숨겨진 보성차밭의 매력을 알리고, 지역 작가와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보성 구석구석을 알릴 수 있는 관광 상품을 제작해 보성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성군 관계자는 "빛 축제를 방문할 계획이 있는 관광객이라면 차 박물관과 북채에 들러 기분 좋고 향기로운 보성농차도 구입하고, 더불어 도예 작가의 작품을 선물로 받으면 일석이조라며 "이벤트는 물량 소진 시 까지 진행되므로 관심 있는 관광객이라면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성=김용욱 기자 ywkim@

광양학사, 올해 입학생 25일까지 모집

광양시는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2019년도 광양학사 신규 입학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인원은 남 20명, 여 30명 등 총 50명으로 시청 교육보육과에서 방문접수를 받는다.

그동안 시는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 소재 대학교에 진학하거나 재학 중인 학생들의 주거 안정과 면학편의 제공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서울시 강서구 내 발산동에 광양학사를 운영해 오고 있다.

자격 요건은 선발공고일 기준 부모 또는 보호자가 1년 이상 광양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실제 거주해야 하며, 서울과 경기, 인천소재 2년제 이상 대학교 신입생, 재학생,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또 지방대학생이 서울과 경기·인천 소재 2년제 이상 대학교에 1학기 이상 교환 학생으로 재학할 경우와 학업·취업관련 연수나 실습을 6개월 이상 받을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광양=오승택 기자 ost6002@






지역신문을 보면 지역이 제대로 보입니다!

우리 지역을 제일 잘 아는건 '지역신문'입니다.
지역신문을 읽는 당신,
내 고향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신문구독, 아는만큼 '힘'이 됩니다.

